

불황에 실직에... 개인 채무조정 신청 늘었다

광주·전남 5월에만 416명 신청... 전년보다 29명 늘어 하루 평균 40건 상담... 구조조정 여파 하반기 더 늘어날 듯

영암 대불산단에서 일하는 A(52)씨는 은행에서 빌린 돈 때문에 걱정이다. 요즘 조선업계의 경기가 좋지 않아 일감이 줄면서 월급이 변변치 못해진 것이다. A씨는 언제 질릴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원금에 이자까지 밀리는 상황이 되자 할 수 없이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 도움을 청했다.

광주에서 건설자재 판매업을 하다 부도를 맞은 B(46)씨도 최근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을 두드렸다. 이미 신용불량자가 됐지만 사업을 하면서 빚진 돈과 밀린 세금을 해결해야만 했다. 채무 조정을 해주고 생활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용회복위원

회는 실의에 빠져있던 B씨에게 큰 힘이 됐다.

경기 부진 속에 올 상반기에도 광주·전남에서 채무 감면이나 상환 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전남지부 등에 따르면 올해 5월에만 광주·전남 지역에서 접수된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신청자(신용회복 지원자)는 416명으로 1년 전보다 29명(7.5%) 늘었다. 지난해 4분기(10월~12월) 1284명이었던 광주·전남 채무조정 신청자는 올해 1

분기 1358명으로 늘더니 최근 증가하더니 5월까지 2197명으로 증가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전라권 관계자는 “2014년을 기해 줄었던 신청자들이 지난해 후반부터 다시 늘어나더니 최근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하루 평균 30여건이었던 관련 상담건수도 최근에는 증가해 40건을 훌쩍 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이 시작돼서인지 목포출장상담소의 상담과 채무조정 신청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문제는 장기 불황과 함께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벌써부터 서민들이 ‘금융절벽’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채무조정 신청자가

50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하반기 조선산업 등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력 감축이 심화하면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통상 실업 등으로 가계 경제가 나빠지고 채무조정을 신청하기까지 6개월 정도는 소요된다”며 “경기 불황이 계속되고 취약업종의 구조조정으로 인력 감축이 본격화되면 하반기나 연말에 신청자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5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을 보면 영암 지역을 중심으로 조선산업 관련 기자재 업체들이 밀집한 전남의 남자 실업률은 지난달 3.7%를 기록해 1년 전보다 0.9%포인트 올랐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56.36 (+20.14)
- ↓ 금리 (국고채 3년) 1.24% (-0.01)
- ↑ 코스닥 669.88 (+10.58)
- ↓ 환율 (USD) 1160.20원 (-11.10)



한전, 소외 청소년 '방과후 학습' 지원 중학생 100명에 매주 영어·수학 수업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지난 28일 본사 비전홀에서 청소년, 대학생, 지역 아동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Global) 인재 양성을 위한 방과후 학습 지원(Power Class Program) Kick-off 행사를 가졌다.

올해로 2년째 시행중인 방과후 학습지원 프로그램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지역 청소년들을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습강사인 대학생들은 공모를 통해 우수한 학생들로 선발되었으며, 한전은 선발된 40명의 대학생들에게 연간 총 1억 4000여만원의 감사로 지급을 통해 경제적 도움을 주고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학습지원 프로그램은 올해 6월부터 시작해 내년 초까지 30주간 진행되며 소외계층 청소년 100명을 대상으로 20여곳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루어진다. 수업 방식은 대학생 1명이 5~6명의 중학생을 지도하고 영어와 수학과목을 매주 각2회씩, 1회당 2시간씩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환익 사장은 “이번 소외계층 청소년 방과후 학습지원을 계기로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자신들의 꿈을 실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학생들이 Global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전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온난화로 2040년 쌀 생산량 14% 감소

농진청 분석 2060년 22%·2090년 40% 줄어... 대책 시급

온난화 등 기후 변화로 국내 쌀 생산성이 급감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농촌진흥청은 ‘제5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와 기상청이 만든 기후변화 시나리오(RCP 8.5)를 분석한 결과, 온난화가 계속되면 2040년 쌀 생산량이 10a(아르·1천㎡)당 408.7kg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는 쌀 생산량이 정점을 찍었던 1990년대(10a당 473kg)에 비해 13.6% 감소한 수치다. 또 지금과 동일한 재배법과 벼 품종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가정했을 경우 쌀 생산성은 계속 줄어 2060년대 22.2%, 2090년대 40.1%까지 줄어든 것으로 내다봤다.

벼의 경우 열대 벼와 온대 벼 등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온대 벼를 경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진청은 온도에 적응할 수 있는 벼 품종과 이앙시기, 시비 방법 등 재배법 개발에 주력하고, 보리과 콩 등 다른 작물도 연구할 계획이다.

광주은행, 행운의 고객 304명 추첨

‘계좌이동 고객 감사 이벤트’ 경품 전달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28일 ‘계좌이동 고객 감사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하고, 본점 17층 회의실에서 당첨 고객에게 경품을 전달했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2월 26일부터 시행한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에 맞춰 5월 31일까지 진행한 이벤트로 여러 금융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를 광주은행 계좌로 변경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전산 추첨을 통해 총 304명의 고객을 행운의 주인공으로 선정했다.

이벤트는 먼저 주거래통장에 가입하고 자동이체를 변경한 고객 중 1등 당첨자 10명에게 100만원 여행상품권, 2등 당첨자 10명에게 10만원 백화점 상품권, 3

등 당첨자 50명에게 휴대폰 보조배터리, 행운상 200명에게는 5000원권 GS모바일상품권을 전달했다. 또한, 주거레저금에 가입하고 자동이체를 변경한 고객 중 1등 당첨자 1명에게 300만원의 여행상품권, 2등 당첨자 3명에게 70만원 상당의 삼성로봇청소기, 행복상 당첨자 39명에게 1만원권 기프티콘을 전달했으며, 당첨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업전략본부 송중욱 부행장은 “계좌이동제를 통해 많은 고객분들이 광주은행을 주거래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28일 '계좌이동 고객 감사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하고 본점 17층 회의실에서 당첨 고객에게 경품을 전달했다. <광주은행 제공>

주택대출 금리 5개월 연속 하락

년 2.89%... 13개월만에 최저

지난달에도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하락세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16년 5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연 2.89%(이하 신규취급액 기준)로 4월보다 0.04% 포인트 하락했다.

이로써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작년 12월 3.12%에서 올해 1월 3.10%로 떨어진 이후 5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5월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작년 4월(2.81%) 이후 13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3.16%로 4월보다

0.01% 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3월 3.24%에서 4월 3.17%로 떨어진 데 이어 두달째 내렸다. 집담대출이 2.90%로 0.01% 포인트 떨어졌고 예·적금담대출(3.09%)이 0.02% 포인트, 보증대출(2.89%)이 0.03% 포인트 각각 내렸다.

은행의 가계대출 중 3.0% 미만의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 비중은 65.6%나 됐다.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 비중은 47.6%로 한 달 전보다 1.0% 포인트 하락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지난달 3.55%로 변동이 없었다. 대기업의 대출 금리는 3.27%로 전월과 같았고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3.71%로 0.02% 포인트 낮아졌다. /연합뉴스

금융시장, 브렉시트 공포 벗어나나

미국·유럽 증시 일제히 상승... 국제유가도 오름세

국제 금융시장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공포에서 벗어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브렉시트 결정 이후 2거래일 동안의 급락세에서 벗어나 상승장으로 마감됐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월보다 1.6% 상승해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지수도 각각 1.8%, 2.1% 올랐다.

이날 뉴욕증시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24일과 27일에 나타났던 투자자들의 ‘팔자’ 분위기와는 정반대였다. 영국

의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가 결정된 24일에 3대 지수는 각각 3.4%, 3.6%, 4.1% 하락했다.

27일장에서는 낙폭이 줄긴 했지만 3대 지수가 각각 1.5%, 1.8%, 2.4% 떨어져 브렉시트의 공포가 이어졌다. 유럽 증시에서도 투자심리가 살아났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2.6% 올랐고, 범유럽지수인 유로 Stoxx도 2.1% 상승했다.

국제유가도 오름세로 돌아섰다.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8월 인도분은 전월보다 3.3% 올랐다. /연합뉴스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 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참숯구이 민물장어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 목, 토, 일
-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동,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참숯구이 민물장어와 숙지향 삼계탕을 개시합니다.
- 솔향기정식, 돼지갈비, 참숯구이 민물장어, 숙지향삼계탕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참숯가마 찜질방 / 족욕탕 / 참숯구이 민물장어 & 돼지갈비 전문점 / 노래방 & 동전노래방